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2.23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미국 증시 상승

- 미국 증시 주요 지수 상승: 나스닥 0.9% 상승
- 미국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위법 판결
- 미국 4분기 GDP '저조', 12월 PCE 가격지수 '끈적'

Summary

2월 20(현지 시각)일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0.47% 상승한 49,625.97에 마감했고 S&P500 지수도 0.69% 상승한 6,909.51에 거래를 마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는 0.9% 상승한 22,886.07에 마감해 3대 지수 중 오름폭이 가장 컸음.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0.05% 소폭 하락 마감.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을 근거로 내세운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 관세 영향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일단 걷어냄.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10% 글로벌 관세 부과를 천명하고 다음날 세율을 15%로 올리는 등 우회 경로를 통한 관세 부과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음. 한편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대체로 부진. 4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기준 전기 대비 1.4%에 그쳐 시장 예상치 2.5%를 크게 하회.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 위축, 기업 설비 투자와 주택 관련 지표의 부진, 그리고 연방 정부 부분 셧다운이 모두 부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 함께 발표된 12월 PCE 가격지수는 시장 예상을 웃돌아 고물가 지속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함. 12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2.9%, 전달 대비 0.4% 상승해 전달 수치와 시장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음.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도 전년 대비 3%, 전달 대비 0.4% 올라 예상 상회.

(다우 +0.47%, 나스닥 +0.90%, S&P500 +0.69%, 러셀2000 -0.05%)

특징종목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관세로 인한 대표 피해 업종으로 여겨졌던 이커머스 기업들이 대체로 강세. 아마존닷컴(+2.56%), 쇼피파이(+1.94%), 이베이(+3.92%), 엣시(+8.39%). 지난해 33억 달러의 관세 폭탄을 맞았던 애플(+1.54%) 역시 비용 부담 감소에 대한 기대로 강세. 알파벳(+4.01%)은 직전 모델에 비해 추론 성능이 두 배 이상 향상된 제미나이 3.1 프로를 공개한 가운데 상승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2.59%)는 메모리 공급 대비 수요가 앞서는 슈퍼 사이클이 상당 기간 지속돼 제품 가격 상승을 이끌것이란 전망 속에 상승세. 샌디스크(+4.65%)도 동반 상승. 사이버 보안 기업이자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기업인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14.07%)는 양호한 전분기 실적에도 향후 가이던스가 부진한 여파로 급락. 지스케일러(-5.47%),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홀딩스(-7.95%) 등도 동반 하락. JP모건은 지스케일러의 목표주가를 기존 354달러에서 267달러로 하향함. 오라클(-5.40%)은 번스타인의 투자의견 하향과 내부자 매도 등이 맞물려 약세. 인페이즈 에너지(+5.22%)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강세. 엔비디아(+1.02%)는 이번주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소비자용 PC 시장 재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음.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국 채권 시장에서 국채 금리는 대체로 제한적 상승. 상호관세 등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환급 이슈가 부상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대체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부 반영돼 국채 금리 하락으로 이어짐. 달러 가치는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에 강세 압력을 받기도 했지만 관세 관련 판결로 불거진 재정 악화 우려는 달러 가치를 소폭 약세로 돌림. 달러인덱스(DXY)는 0.13% 하락한 97.796을 기록. 상품 시장에서 WTI는 보합으로 마감했으며 금값과 은값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은값의 오름폭이 6%대로 컸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